

平生教育 概念의 發展과 大學의 社會教育

李 淳 珩

〈目 次〉

- | | |
|------------------|---------------------|
| I. 平生教育의 理念的 背景 | 2) 平生教育의 概念 |
| 1) 學校教育의 限界 | III. 大學의 社會教育 |
| 2) 現代社會의 要請 | 1) 大學의 社會的 機能 |
| 3) 自我實現으로서의 平生教育 | 2) 社會教育의 內容 및 方案 |
| II. 平生教育 概念의 發展 | 3) 大學社會教育의 몇가지 당면문제 |
| 1) 平生教育概念의 抬頭 | IV. 結 論 |

평생교육은 이제 國民의 基本權이 되었다. 새 憲法 29조 5항에 의하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한다.」고 규정하여 앞으로 평생교육의 구현은 한국교육의 主要理念으로서 천명되었으며 이를 통해 福祉社會를 이룩하여야 하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政策課題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각자가 존엄한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물질적 바탕이 갖추어지고 또한 價值的 存在로서 자유롭게 살아 나가도록 精神的 豐饒가 성취되는 사회를 전망하고자 할 때, 한마디로 이는 國民教育의 動員없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끊임없이 자기를 교육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간의 본래적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작성하고 실천토록 함으로서 그야말로 평생을 터득해 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는 個個人的 努力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바꿔 말해서 국가가 교육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좋은 교육을 베푸는 일없이 불가능하다. 유족한 삶을 위해서 교육은 個人的 脈絡에서도 중요시되지만 아울러 개개인의 행복이 인간답게 사는 데서 추구되도록 社會的 脈絡에서 자극하는 社會制度나 風土의 造成도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베풀어져야 하고 배움의 욕구가 상승될 때 충분히 허용되어야 한다. 스스로 하는 학습과 평생에 걸치는 교육만이 개인의 계속적 성장과 삶의 質的 成就를 보장한다면 국가로서는 教育의 機會와 質을 함께 조화시키는 制度的 裝置가 필요하다. 이것이 平生教育이다.

최근 선진국가나 개발도상국가를 막론하고 그들은 평생교육을 장차 教育政策을 위한 基本概

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국가·사회적 기능을 위한 타당한 비전의 추구이며 앞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을 토대로 국가마다 교육개혁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최초로 평생교육 이념을 헌법적 명문화한 시점에 도달했지만, 아직은 政策意志에 머물러 있는 段階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실제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실천을 위한 後續的 努力이 계속 요청된다. 바꿔 말해서 그 概念에 대한 理論의 深化나 실제면에서 法規나 制度, 教育體制 또는 教育課程 등 어느 면에서도 미흡한 수준에 처해있는 것이 평생교육의 현실이다. 우선 아직도 概念把握에 대한 명확한 論議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평생교육의 技術的 定義에는 대체로 合意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理念的 定義에는 아직도 論爭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더 깊이 있는 討論이 계속되어야 한다.¹⁾ 평생교육이 아직 뚜렷한 理論的 定立이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이해 없이 졸속하게 교육실제에 적용되어 나간다면 이에 따르는 위험부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 그러므로 아직 행정가들이나 교육일선에 대해 그 實踐을 위한 理論的 準據가 제대로 주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平生教育에 대한 基本理解를 넓혀가는 일은 이런 장애를 극복해나가는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다.

평생교육의 實際的 展開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관련된 視角에서 그 論議가 동원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보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허용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는 여러가지 면에서 시도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 개념의 발전과 그 관련개념들에 대한 검토를 가하면서 그 概念的 地 平을 넓히고 또한 평생교육의 실천과 관련하여 大學의 중요한 社會教育的 機能을 조명함으로써 몇가지 실천적 課題를 시사해 보고자 한다.

I. 平生教育의 理念的 背景

시대는 저마다 새로운 教育的 要求를 갖는 것이며 그 요구로 하여 교육은 또한 새로운 理念을 내세우게 마련이다. 오늘날 교육에 관한 수많은 통찰 가운데서 평생교육이야말로 이러한 모든 요구를 수렴하고 교육의 본질적 이념을 잘 조명해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1) 黃宗建,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유대" 『社會教育研究 7 (社會教育協會 '82)에 대한 토론 金信一 "평생교육을 위한 학교와 사회의 유대강화," pp.22-24

2) 張眞鎭, "平生教育의 理論的 構造," 『경희대학교 논문집, 11집 (인문사회과학편) '82 pp.142-77.

까닭은 평생교육이 전제하고 있는 教育觀의 새로움 때문이다.³⁾ 어쩌면 평생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근거는 단지 교육실천의 측면에서 요청되는 法觀上의 자극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념이 안고 있는 嶄新性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분명히 평생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을 보는 視覺에 대한 革命的 排戰이다. 그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目標나 內容, 그리고 方式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編制를 요청한다.

왜 그러한가. 여기서는 그 이념적 요청을 다음의 3 가지 측면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1) 學校教育의 限界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교육이 또 교사에 의해서만 이끌려지는 것이라는 교육관이 전통적으로 우리를 지배해 왔다.

원래 교육은 인간이 스스로 삶의 質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意志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간들의 생활과 함께 있었다. 종족이 보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유용한 삶의 경험을 전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삶의 현장에서 탐색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의 현장이 교육의 장이요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것이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그 기회에 제한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발전과 그 준비를 위해 체득해야 할 知識・技術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역할을 맡는 기관이 전문적으로 분화된 것이 사회적 제도로서의 학교의 시작이었다. 그리하여 학교교육이 모든 청소년들이 成人社會에 유효하게 참여하기 위한 準備過程으로 인식되면서 학교는 졸업하기만 하면 교육은 일단 그것으로 끝나는 일로 간주하였다. 이리하여 교육은 일생에 있어서 일회적인 것이며 그 대상은 靑少年時節에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또한 그 時期를 놓치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폐쇄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말하자면 이것이 制度로서의 學校이다. 그 결과 學校教育과 學校外 教育과는 별개로 구분됨으로써 오히려 학교는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여러 生活의 局面에 대해 이를 외면하게 되었고 획일화되어 事象의 理解와 生活技能의 訓練이란 필요에서 知識爲主의 教育으로 흘러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밖에 없다. 가령 Dewey 에 의하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教育內容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準거는 社會的 脈絡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⁴⁾ 이러한 생각은 교육은 生活과 유리된 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經驗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새로운 교육관— 이른바 진

3) 金信—平生教育의 社會的背景, 유에스코한국위원회·평생교육기구, 平生教育發展을 위한 세미나보고서 '82.12.p.1.

4) Dewey. J.,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Free press, 66. p.46

보적 교육관 - 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었다.

새로운 도전은 그에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할 때 일어난다. 사실상, 학교교육이 硬直化되면서 그 본래적 기능의 상실에 대한 비판은 근래에 와서 꽤 심각한 바 있다. 이들 학교의 制度的 硬直性和 관련하여 제기된 Illich의 주장은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이다. 그에 의하면 교육의 발달은 學校의 制度化로 특징지워지고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었고 그 결과 교육의 機會均等實現에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社會의 不平等構造를 再生産하고 있다고 비난한다.⁵⁾ 따라서 脫學校論의 洞察들은 학교의 제도적 오만을 헐어버림으로써 교육개혁에 새로운 視角을 던져주었고 아울러 경직된 학교제도로부터의 탈피와 自由로운 學習機會의 보장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⁶⁾ Lister가 평생교육이념이야말로 현재의 학교교육의 실패에 새로운 突破口를 열어준다고 지적한 것은 이점에서 적절한 것이다.⁷⁾

요컨대, 학교교육의 逆機能에 대한 비판들은 평생교육의 대두와 관련하여 전통적 教育觀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들였고 教育의 意味와 範圍가 재규정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교육이란 제도적 교육, 즉 좁은 의미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태어난 이후 죽을 때까지의 삶의 경험 전부 또는 기성세대가 의도적으로 경험시키는 모든 경험활동이다.」교육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을 때 평생교육은 그 본연의 위치가 더욱 잘 밝혀질 수 있다.

평생교육은 새로이 발견된 교육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자체를 교육이라고 보는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⁸⁾ 이렇게 되면, Faure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 교육은 현대교육의 諸 要請에 비추어 그 構造와 概念까지도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학교가 감당하게 될 새로운 문제들은 너무나 심각하다. 예컨대 학생수의 증가나 심각한 자원부족, 급등하는 교육비, 결과에 적응하지 못하는 無能力, 그리고 惰性和 非能率등 교육문제의 위기는 더욱 증대되어 갈 것임에 틀림없다.¹⁰⁾ 또한 미래의 교육이 포괄해야할 바는 知識技能이나 教科이상의 것이다. 직업의 준비만이 아닌 分析的 思考能力, 합리적 態度, 價值, 인간적 포부의 함양, 審美的 감상력의 도야, 생활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지속적인 습득 등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학습들이다. 그 깊

5) Illich, I.,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rper and Row. 71.

6) 李段淑, Ivan Illich의 脫學校論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82.p.82

7) Lister, I., *Deschooling - A Rea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74.

8) 金仁會, "平生教育의 哲學的 側面,"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 平生教育論壇, pp.28-9

9) Edgar Faure, et al., *Learning to be*, Paris, unesco.'72 chap.1.

10) Coombs, P.H., *The World Educational Crisi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68

이나 복합성에 있어 이를 성취함에 요청되는 노력, 시간 등에서 각기 다른 학습들이며 그 轉移나 持續性 등에서 한 시기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니다. 더욱이 학습자 중심에서 보면 그 教育的 必要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학습자원이나 方式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여,¹¹⁾ 한정된 유형의 제도로서는 충족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같이 학교교육체제의 잠재된 결함에 대한 인식이 더욱 예민해질 때 교육활동은 학교에 국한시킬 수 없는 일이며 학습수단별 특색에 맞게 時間과 場所別로 再配分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현대사회의 기존교육에 대한 도전은 時限附 教育觀의 不安全性을 들어냄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한 完成教育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¹²⁾ 그러므로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평생교육에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2) 現代社會의 要請

교육의 변화를 일구어온 여러 理念의 源泉들은 교육이 사회의 機能인 한 그 社會的 適切性 (social relevance)을 유지하는 일에서 검토되지 않을 수 없음을 요청하고 있다. 그만큼 社會 變化 추세나 새로운 특성들은 교육사조의 흐름에 어떤 轉機를 그어 놓는다. 平生教育에의 開眼도 이러한 사회변화의 諸 要請들에 따른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金信一은 평생교육의 社會的 背景을 고찰하는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현대사회의 특성들이 새로운 교육에의 요구를 유발시킨다고 보고 있다.¹³⁾

첫째, 産業化의 추세이다. 산업화는 職業構造에 변화를 가져온다. 동시에 就業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취업중인 사람들의 繼續教育의 必要性을 증대시킨다. 또한 산업화는 都市化를 촉진시킴으로써 도시移入人口의 생활적응에 대한 교육을 유발시키며 특히 교육의 필요시간이나 教育費마련이 불리한 勤勞靑少年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慣例的 制度와 方式으로 도저히 그들의 教育的 要求를 충족시켜 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산업화는 家庭機能의 變化를 초래함으로써 女性들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에의 요구를 허용하였으며 余暇文化의 一般化로 그 창조적 향유에 대한 인식에로 전환됨으로써 그에 따르는 교육적 요구의 새로운 제기를 창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로, 현대사회는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成人들의 계속적 再社會化의 需要를 새

11) Coombs, P.H. and Others, New Paths to Learning Prepared for UNICEF by Inter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N.Y. '73.

12) 張眞鎬, 社會教育의 方向 —平生教育의 觀點에서, 正益社, '79. p.22

13) 金信一, 앞의 글 pp.2-9

롭게 인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인구층의 강화는 인간의 老年期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고 있지만, 成人期 役割의 확대라든지 그들이 맞이해 온 社會的 役割의 급격한 발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를 成人期和 老年期에서의 새로운 교육적 요구는 더욱 절실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반면에, 평생학습의 필요는 오히려 한 개인의 평생에 걸쳐 수행하게 되는 社會的 地位와 役割變化의 관점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發達論的 見地에 따르면¹⁴⁾ 인간은 그 成長 發達의 단계에 따라 자기 다른 삶의 과업들에 부딪친다는 것이며 이것을 적절히 배워나가지 않아서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예컨대 이러한 시기에 부딪치게 되는 발달과업으로는 자녀의 양육이나 가계의 안정, 성공적인 직업생활, 시민적 책임의 효율적 수행, 의의있는 사회활동에의 참여, 은퇴와 배우자 사망이후의 적응 등, 이것들을 모두 새롭고 벅찬 것들이다. 또한 성인이기 변화에 대한 태도가 민첩하지 못하고 사고의 신축성이 부족한 것도 지속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는 심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시기가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가장 많이 부딪치는 시기라는 점에서 또 수시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늘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습득해야할 필요는 靑少年期에 비해서 절대로 과소평가될 수 없다. 靑少年期에 학습된 社會化만으로는 成人期에 기대되는 社會的 役割行動은 적절히 수행해 나가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여러차례 自我概念을 수정하고 그 地位와 역할에서 끊임없는 변동을 맞는다. 뿐만아니라 직업세계에서의 계속적 성취, 가족상황의 변동등 이들의 학습, 적응해 나가야 할 再社會化에서의 過程은 교육적으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¹⁵⁾

이와같이 社會的 役割을 중심으로 보는 成人學習의 課題는 넓은 의미의 教育인 社會化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제임을 뜻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평생교육은 生의 최초로 시작하여 生의 終末에 끝난다. 그것은 人間發達의 모든 段階와 모든 局面과 個人의 수시로 담당하게 되는 모든 役割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한 Dave의 평생교육개념에 대한 고찰¹⁶⁾은 人間學習의 體制가 종래까지와는 달리 全生涯에 걸쳐 새롭게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3) 自我實現으로서의 平生教育

인간의 行動이나 삶의 樣式은 그 基底에 있는 欲求나 動機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주목된다.

14) Harvighust(김재은 역), 人間發達과 教育, 培英社. '63

15) Secord, P.F., and Beckman, C.W.,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ow Hill. '64. pp.525-28

16) Dave, R. H., Lifelong Education and School Curriculum, Hamburg, UNesco Institute, '73.p.55

이러한 욕구는 음식물의 섭취나 正的인 情意的 反應을 유지하려는 유기체적인 욕구의 충족만이 아니라 永續的 安定에 이르기를 욕구하는 데서 인간의 삶은 그 깊이와 높이에 관련되어 동거지어진다. 이는 個體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社會現象 또는 宇宙와의 관계 속에서 自己正體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깊이와 높이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관세지으려는 自己定立 (self-orientation)의 노력이다.

인간은 生의 물음을 물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자신의 實在的 意味를 밝히는 過程에서 삶의 本質의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自我正體感의 확인없이는 무의미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인간에 내재하는 높은 욕구에서만 준별되는 質的인 삶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 인식은 삶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싹터나지 않는다. 삶에는 궁극적 목표가 있고 그것은 저마다 지닌 바, 잠재가능성에 따라 실현되어야 할 특이한 그 무엇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 自我動機化 (self-motivated)에서 의미있는 삶에 눈이 떠진다고 할 때, 그 기저에 어떤 欲求가 있음을 상정한다. 그러면서 內在的 動機에서 발해지는 욕구들이 유기체의 존립을 위해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해가면서 조화적으로 통합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Goldstein는 인간 유기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세제안에 자신의 지닌 속성을 실현시키려는 경향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하였다. 17) Coombs와 Snygg가 自我의 維持와 高揚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포괄적인 욕구가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라든지 Rogers가 인간유지체는 自身을 實現하고 유지하고 向上시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18)

이에 관한 Maslow의 생각은 存在의 심리학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19) 그는 인간욕구는 上昇的으로 기능하는 位階體制로서 궁극 自我實現으로 지향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上位의 욕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欠乏의 充足과는 다른, 스스로 成長하려는 욕구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극, 개발되지 않아서는 안되는 욕구이다. 밑에서 부터 계속적으로 충족되어 위제를 높혀감으로써만 발달할 수 있는 욕구이다. 自我實現이란 이들 욕구가 어떤 頂點에도 계속 발달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성장하려는 자아실현의 욕구는 어느 단계에서 休止되지 아니하고 교육적으로 적극 개발, 고양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生의 意味와 目的, 價值등의 추구에 관련된다. 인간의 형성이나 성취란 남

17) Goldstein, K., The Organism. New York, World Book, '38. p.196

18) Coombs, A.W., and Snygg, Individual Behavior New York, Harper and Row, 59. p.38

Rogers, C R.,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61.

19) Maslow, A.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62.

과 같이 되는 것을 이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바, 깨달음에 의한 자기다움게 되는 일이다. 자아실현이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는, 최근 人間中心主義 教育觀의 대두는²⁰⁾ 생애의 자기실현을 내다보는 평생교육에 중요한 이념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실현이라고 하면 그 실현에의 접근이나 성취는 한 시기에만 멈출 수 없는 것이요 계속해서 도와나가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개인들로 하여금 평생에 걸친 삶 전체에 대한 계속적 물음을 추구하도록 작성시켜나가지 않아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평생교육은 각 개인의 자아실현의 계속적인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Cropley도 평생교육의 개념을 밝히는 가운데서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였다.²¹⁾ 평생교육이 꾀하는 바가 개인의 의미있는 삶의 계속적 형성과 그 향유에 있다면, 오히려 成人世대에 와서 인간의 교육은 더욱 강화되지 않아서는 안될 필요를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통해 社會적, 制度的인 動機化가 필요하며 自覺的 欲求에서 우러나오는 계속적인 학습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교육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²²⁾

II. 平生教育 概念의 發展

1) 平生教育 概念의 發展

평생교육이란 英語의 lifelong education을 우리 말로 옮겨 사용하는 用語이다. 이 말은 일찌기 Paul Lendgrand 등에 의해 佛語인 L, education Permante로 概念化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形容詞 Permante가 含意하는 바는, 본디 교육에는 完結이 있을 수 없으며 또 그것은 持續的인 일임을 강조하려 하므로써 「永久」教育이란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었다.

원래 평생교육개념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유네스코의 成人教育發展을 위한 교육전문가들의 일련의 회합에서 시작되었다. 주지하는 바, 유엔이념의 중요한 표현사업기관인 유네스코는 교육을 통한 인간존엄의 구현이 주요한 모토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新生後進國 國民의 生業 向上을 통한 經濟發展과 民主主義理念의 보급은 그 중요한 활동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성인교육이 주요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에 있어서 그 필요나 개념 및 전

20) Patterson, C.H., Humanistic Edu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73.

21) Cropley, A.T., (ed.) Lifelong Education: A Stocktaking. Harmburg,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79.p.3

22) 李星鎬, "平生教育의 心理學的 基礎," 金蘭洙外, 平生教育論. 文音社, '82.p.111.

략의 형성들은 유에스코의 다양한 성인교육 연구활동에서 그 맥락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9년부터 유에스코는 3차에 걸친 일련의 국제회의를 거치면서 사회·경제·문화 등 여러부면에 걸친 당면한 문제들을 성인교육과의 관련성에서 접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65년 12월, 「성인교육발전을 위한 국제위원회」에서는 Leugrand 이 발표한 「繼續教育」에 관한 논문을 기초로 그가 제시한 평생교육의 원리를 유에스코가 공식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72년 東京회의에서는 이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모든 나라의 교육 정책에 이 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 후 평생교육은 여러 나라에서 教育政策思考의 초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73년 春川에서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계기로 이제는 法規的 水準에 까지 정착되어, 현실적 교육정책의 이념으로서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Lengrand 이 제시한 평생교육의 필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²³⁾

- ① 인간의 이상, 관습, 개념의 가속도적 변화
- ②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교육의 양적 확대와 또 질적 변화를 초래한 점
- ③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 ④ 정치의 변동
- ⑤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정보처리능력의 필요성 증대
- ⑥ 여가의 증대와 활용
- ⑦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위기
- ⑧ 현대인의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
- ⑨ 이데올로기의 위기에 있어서의 정체의식의 혼란

이러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특히 72년의 東京會議에서의 주제가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본 성인교육」이었다는 점은 평생교육이 성인교육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성숙된 발전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종래에는 教育機會의 損失, 또는 欠乏에 대한 補充教育(remedial education)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성인교육은 機能的 識者를 기르는 교육에만 머물러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성인 학습자는 최소의 교육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 상승적 계속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이들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生存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²⁴⁾

23) 볼 랭그랑, 平生教育,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2, pp.8-20.

24) Musgrave, P.W., Society and Education in England since 1800, Methaun Press, London, 76을 인용한 金昇漢, "外國의 成人教育和 市民教育의 實態," 중앙교육연구소, 韓國의 民主的 發展과 成人教育의 課題, '66 pp 42-49

성인교육은 이제 새로운 필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교육과 학교외교육이 유별됨으로써 기껏해야 追加的 教育의 성격으로만 간주되어 온 學校外教育을 적극 고려에 넣을 필요를 깨닫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時期, 모든 形態의 教育」을 통합해서 교육은 일생동안 지속되어야 할 繼續的 過程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게 된 것이다. 랭그랑의 논지를 따른다면 그것은 ① 初中等・大學教育의 水準別 學校教育의 統合 ② 家庭・學校・社會教育의 統合 ③ 專門技術教育과 一般教養教育의 統合이 그것이다.²⁵⁾

그러나 이러한 평생교육개념의 발전과정에는 成人教育의 機能과 役割에 대해 각국의 갖는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었다. 가령, 영어의 용어들로만 보더라도 fundamental education」(基礎教育)「further education」(追加教育)「continuing education」(繼續教育), 「recurrent education」(循環教育), 「community education」(地域社會教育)「nonformal education」(非正規教育), 「career education」(生涯教育), 「social education」(社會教育)등 실로 그 이름이 다양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영어로 lifelong education으로 결정하였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도 평생교육이란 용어를 공식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일반화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平生教育의 概念

유네스코가 규정한 평생교육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平生을 통한 教育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은 일정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學校教育과 조직화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社會教育을 다같이 改編 強化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教育資源을 效率化함으로써 教育力을 極大化하려는 努力이다. 그것은 또한 급격히 變遷하는 社會에 있어서 個人과 集團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自己更新과 社會的 適應을 추구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며 學校의 社會化와 社會의 教育化를 이룩하려는 일련의 새로운 教育的 努力이다.」

이 정의에는 우선 평생교육이란 生涯를 통한 교육이라는 점이 먼저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成人期의 教育까지를 포함하는 繼續教育의 중요성이 천명되어 있으며 그것은 幼兒期에서 老年에 이르는 전생애가 教育의 기간이 연장·확대되어 있음을 뜻한다. 인생의 전 기간이 교육의 시간이요 그러므로 교육이 길이는 인간의 생애만큼나 길어졌음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개념이 의거하고 있는 둘째의 중요한 요소는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더

25) 뿔 랭그랑, 앞의 책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주요한 教育의 場으로 보고자 하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補足的 意味밖에 지니지 못했던 學校外教育을 教育의 장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教育의 효율성이 제도적인 학교를 통해서만이 아닌 각종의 社會教育에 훨씬 더 크게 잠재되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教育은 社會的 機能이니만치 학교의 목적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學校의 社會化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안되며 또한 사회가 갖는 教育적 영향력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社會의 教育化가 필요하다는 이상을 평생교육이 중요시하고 있음을 세계의 개념요소로서 추려볼 수 있다.

학교교육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사회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수행되는 중요한 사회기능이다. 따라서 教育의 목적이나 내용도, 그 과정에서의 방법도 그리고 산출도 사회의 견지에서 적절한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학교기능의 固式化나 그 위기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학교 밖의 사회적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이는 학교가 사회에 의해 전통적이거나 수동적 입장에만 머물르게 될 때 더욱 두드러진다. 학교교육이 사회의 하위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여러 사회기능을 견제·창출하고 분화시키면서 통합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사회적 필요를 달성하는 한 유형으로서 社會機關인 이상은 그 사회적 성격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으로 社會의 教育化란 教育이 개인이나 집단이 삶의 목적을 실현해가는 사회적 현상의 한 양태로서 사회의 전 현상으로 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불러들이는 요청이다. 教育의 구체적 양성은 사회·문화적 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나간다. 평생의 教育을 社會化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때, 그 教育력은 학교에만 주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정, 집단, 직장, 단체, 또는 사회가 갖는 風土나 時代精神까지도 인간을 教育하는 실제적 마당이 된다. 그 마당이 人間學習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아니 오히려 평생 教育은 그 학습의 장까지도 教育의 網안에 통제해봄으로써 그 教育력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또 극대화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때 教育은 사회의 모든 잠재적 教育자원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접근해 갈 것이며, 결국 사회자체가 전전한 학습의 장이 되는 學習社會(learning society)를 전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생교육의 중요한 전략이자 이상이 던져져 있다. 유네스코는 1970년 「世界教育의 해」를 계기로 教育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 즉 「生存을 위한 教育」(learning to be)를 마련한 바 있는데,²⁶⁾ 이를 요약하면, 앞으로 教育이 실현해야 할 근본원리를 제시하려고 한 것이며, 한마디로 학습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 그 要旨라고 말

26) Edgar Faure, et al., op.cit., 吳基亨外역, 人間化教育, 一潮閣.

할 수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모든 국가는 평생교육을 그들의 교육정책의 기본개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²⁷⁾

평생교육의 개념정립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랭그랑에 의하면 평생교육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그 基本要素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즉 평생교육은, ①교육의 全過程의 生活化이며, ②이는 個人的 全生涯를 통한 繼續的인 教育이다. ③또한 모든 形態의 教育의 統一的 連繫・組織化로서, ④生の 全期間을 통한 垂直的 統合과 아울러 社會生活의 모든 局面을 포함한 水平的 統合이 평생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이를 요약하면 교육의 繼續性和 生活化, 또 모든 형태의 교육의 통합과 生の 全期間, 生活의 全局面이 統合되는 교육이 될 것이다.

한편 Dave는 평생교육의 기본 골격을 生(life), 生涯(lifelong), 教育(education)에다 두고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특성을 다음의 20個項으로 제시하여 설명하였다.²⁹⁾

- (1) 평생교육 개념이 뜻하고 있는 3가지 기본단어는 生과 平生과 教育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의 의미와 범위는 위 세가지 단어에 부착된 뜻과 해석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다.
- (2) 교육은 학교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平生을 통한 과정이다. 평생교육은 한 個人的全體生活의 領域과 길이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 (3) 평생교육은 成人教育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學令前教育, 初・中・高等教育 및 그 밖에 모든 단계의 교육을 포괄하거나 통합하는 개념이다. 즉 교육을 하나의 全體로서 파악해야 한다.
- (4) 평생교육은 形式教育和 非形式(正規)교육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計劃的 學習이나 非形式的 學習(informal learning)을 모두 포함한다.
- (5) 家庭教育은 평생교육에 있어서 일차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6) 평생교육체제에 있어서는 地域社會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사회는 兒童이 지역사회와 접촉할 때부터 그 후 직업적 사회적 생활을 영위해가는 成人期까지 모든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7) 학교나 대학 그밖에 모든 교육기관들은 그들대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전생애적인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질 뿐이다. 이것들은 교육을 독점하는 기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들과 분리된 채 존속할 수 없다.
- (8) 평생교육은 지속성과 아울러 垂直的, 總的 側面에서의 連繫性을 추구한다.

27) Ibid. p.182

28) Parkin, G.W., Towards a Conceptual Model of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73, p.7.

29) Dave, R. H., op.cit., p.9 - 28

- (9) 평생교육은 모든 發達段階에 있어 水平的·深層的 側面的 統合을 추구한다.
- (10) 평생교육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교육형태와는 달리 본질에 있어 교육의 普遍化와 民主化를 나타낸다.
- (11) 평생교육은 學習의 時間·內容·方法 및 資料등에 있어서 融通性과 多樣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
- (12) 평생교육은 새로운 學習資料와 媒體가 개발되었을 때 이를 즉시 活用할 수 있게 하는 力動的인 教育의 方法이다.
- (13)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教育形態와 方法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교육체제이다.
- (14) 평생교육은 一般·教養教育과 專門·職業教育으로 구성되나 이들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 (15) 평생교육에서는 개인 및 사회의 適應機能과 革新機能이 함께 계속 발휘되도록 기대한다.
- (16) 평생교육은 기존교육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矯正機能을 수행한다.
- (17) 평생교육의 궁극 목표는 삶의 質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 (18)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機會와 動機 그리고 教育力(educability)의 3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9) 평생교육은 모든 형태의 교육을 組織하는 原理이다.
- (20) 평생교육은 여러가지 教育目標과 家庭·學校·地域社會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教育形態, 教育行政, 學習戰略, 學習方法과 媒體, 評価節次등을 망라한 하나의 全體的 體制를 마련해 준다.
- 이를 보면 평생교육은 삶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삶, 生涯, 教育의 근본적 성격에 비추어 그 구도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되며 교육의 繼續性과, 人間發達에 따른 다른 生活局面과의 關聯性, 그리고 모든 教育的 努力을 統合하여 모든 교육을 하나의 전체적 체제로 보아 나가는 데서 교육의 이상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들 要素를 고려하면서 다음 몇가지로 간략히 概念을 요약해 보려고 한다.
- 첫째, 평생교육은 인간成長 및 發達을 조장하는 모든 교육을 하나의 全體制로 連鎖시켜 이해해나가려 한다. 이는 교육을 학교기관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命題를 근본적으로 부인한다. 教育=學校教育이라는 等式的 잘못된 도그마를 파기하자는 것이다. 학교교육내지 제도화된 形式教育만을 교육이라 하게 되면 교육에는 그 理論이나 實際에 있어 學校教育과 學校外教育, 또 形式教育과 非形式教育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그어지고 만다. 또한 靑少年期教育과 成人期教育을 각기 구분하여 後者를 교육의 正統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말하자면 이러한 교육의 分界的 思考方式을 지양하고 각기의 교육형태를 下位要素로 하여 통합된 전체 체제 속에서 교육

을 새롭게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時期의 견지에서 볼 때, 인간교육은 學校教育에서 부터 學校後教育으로 구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각 시기의 모든 교육은 繼續的으로 일관되는 連續性的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또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場도 통합되어야 하는 包括的 意味를 지닌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보면 教育의 概念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교육은 형식적 학교교육에서 종식되는 것이 아닌 一生에 걸친 過程으로 이해되는, 바꿔 말해서 개인의 전생애에 걸치는 것이며 학교교육은 교육의 한 기초요 序曲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전통적 교육개념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教育받는 時期와 終了하는 時期가 엄격히 결정되어 있었고 또 학교교육과 成人教育이 독립된 개념하에 制度化되어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교육이란 학교에 입학한 연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早期教育의 觀點을 빌린다면 個人的 한 人間으로서의 知的·情意的 基本 特性은 이미 어머니 품에서 부터 결정적 토대가 形成됨을 밝히고 있다. 幼兒期에 이미 교육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은 學令前教育에서 始發을 끊고자 한다.

이에 따라 靑少年期 이후의 成人教育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時間的 次元에서의 모든 교육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垂直的 統合이다. 이것은 오히려 교육의 중점이 어느 한 시기에만 집중될 수 없고 오히려 학교후교육에 중요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 知識技術의 幅輻등 급격한 社會變化의 速度로 하여 학교교육의 準備的 性格은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교육적 요청을 소화하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한정된 時間의 길이를 가지고는 2~30年後의 필요한 메뉴를 갖출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학교교육이 종래까지 수행해오던 역할의 상당부분이 불가피하게 剝奪되지는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학교는 教育目的을 위시하여 그 內容등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특히 職業生活의 준비와 관련시켜 보면 교육기능의 상당부분이 再調整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요즘 활발해지고 있는 機關·職場등의 각종 研修나 技術教育은 아직까지는 학교교육의 부족한 성과를 보충하려는 必要에서 補足的 機能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학교교육의 特定部分을 상당히 주도해갈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教育的 產出을 달아보고자 한다면 학교교육에서 학교후의 成人教育·社會教育에도 그 추를 옮겨다 놓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와같이 學令前教育, 學校教育, 學校後教育을 學習者의 年令, 教育의 時期에서만이 아니라 各級 教育機關과 거기에서 실시되고 있는 教育에 이르기까지 그 一貫性이 잘 배분 유지되고 있는가가 수직적 통합에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은 家庭教育과 社會教育의 領域도 평생교육의 레이다로 조준, 통합하려고 한다. 이것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空間的 場의 統合이다. 원래 교육이란 個人的 自我實現을 위한

活動이다. 그러나 個我的 實現이 社會的 過程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教育은 無意味하다. 人間의 學習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家庭, 職場, 地域社會의 테두리 안에서 他人과의 社會的 接觸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교교육이라 하더라도 諸社會的 機能과 밀접한 統合的 關係를 유지하게 될 때 제대로 교육이 가능하다.

이것은 단지 家庭教育이니, 職場教育, 社會教育이니 하는 教育의 主催者나 場에 국한된 통합을 이르는 것만은 아니다. 社會 여러 部面에서 이루어지는 教育的 機能도 그것이 의도적이든 무의도적이든 간에 교육적 기능이 발휘되고 있으며 教育의 網안에 統制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예컨대 政治나 經濟, 宗教등 그 現象이나 過程에서 教育的 機能이 작용하고 있다면 教育의 眼目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無形式教育(informal education)이나 非組織的·教育, 非計劃的 教育이 教育的 影響力을 발휘하는 過程이 사회전체에는 너무나 허다하다. 교육은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 있었고 生活이 교육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이를 잘 실감할 수 있다. 각자가 속해서 살아가는 각종 클럽이나 자발적 단체를 통한 생활장면이나 협동적 과정에서, 또는 부단히 접하게 되는 매스미디어나 정보제공시설에 참여나 노출은 이들 비형식·비조직적 교육기능들이 생생하게 작용하는 일상의 생활국면들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은 생활의 모든 局面에 걸쳐 여러 機關, 施設, 環境들이 機能하는 教育의 役割이나 内容들이 調和있게 統合·再組織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課題를 제시한다.

세째, 生活과 教育과의 관련성은, 生의 意味에 비추어 부단히 요청되는 生活質에의 물음을 평생교육개념에는 담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은 의미있는 존재로서 보다 가치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哲學的 立場에서 출발한다. 교육에 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각성은 좀처럼 불러들일 수 없는 일이다. Dave가 지적한 대로, 평생교육에서 지향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한 삶의 추구에 귀결되며 이는 教育的 接近을 통해서만 그 적절한 通路가 보장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삶은 他生物과는 달리 生의 意味와 目的, 他值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평생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本來的 삶을 지향하도록 계속적 自己成就를 보장하는 自我實現의 手段으로 교육을 보는 眼目에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풍요 가운데서도 행복하지 못한 삶의 현상들을 우리는 도처에서 많이 보게 된다. 哲學的 見地에서 규정된 인간은 삶의 意味를 追求하는 價值志向的 存在이며 生活의 週期에 따라 個人的·社會的 位置와 役割을 달리하면서 幸福의 실을 변별하며 살아간다. 지극히 존엄한 一回的인 存在라는 사실에서도 그러하거니와 共同體的인 根據나 관련의 확인이 없이는 인간의 삶은 너무나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한 有機體인 個體로서만이 아니라 유의하게 世代交替를 이룩해나가려는 歷史的인 存在로서의 이 모든 存在樣式들을 충족시키려는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존재양식에 충실히 응답하고자 할때 인간에게는 삶의 質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삶

의 내용이 다양해져야 하고 그 眼目이나 質的 水準이 높아져야 한다. 삶의 質의 성취가 여기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면 이는 全生活週期에 걸쳐 일관되는 覺醒과 또는 段階에서 繼起的 自己教育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삶의 내용을 깊이와 높이 그리고 全體로 보는 觀點이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은 어느 의미에서 삶에 대한 부단한 洞察과 분발을 교육을 통하여 불러들이는 意識的 存在樣式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의 개념은 人間의 生命, 삶, 生活이라는 다양한 價值的 命題를 교육이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를 그 本質的 探究課題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평생이란 人生의 여러局面을 연계시켜 한 生涯를 일관된 全體的 過程으로 보고 그 層面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未來志向의 · 價値志向의 關聯性을 지닌 力動的 繼起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 인간학습은 固定되어 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方法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생교육은 교육에서의 ‘어떻게’의 물음에 새롭게 대응하여야 된다고 믿는다.

현대의 교육상황은 靑少年시기만이 배움의 기회가 아니며 學校만이 교육의 場이 될 수 없고 教師만이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³⁰⁾ 老人學校는 배우는 보람이나 즐거움이 어느 한 時期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미 잘 깨우쳐 주었다. 거리나 버스속에서 도서관, 박물관 신문 잡지 기타 미디어의 어디에서건 現代의 學習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평생교육에서는 個人學習, 自律學習이 강조되고 있으며 教育의 機會나 方法을 스스로 찾아 活用하고 自律化해나갈 것을 요청한다. Lengrand은 현대학습의 특질을 가리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망라하는 배움」이라고 말하였다. 현대처럼 情報의 洪水와 技術의 分化로 專門化로 치닫는 社會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등으로만 끝날 수 없고 모두가 계속해서 온갖 方法을 동원하여 배우는 입장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교육적 氣風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教養的 主人이 되게하고 創造者가 되게 한다. 自律學習은 어떤 교육체제에 있어서도 귀중한 가치를 지니며, 그러므로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도록 꾸며진 여러 종류의 機關과 奉仕는 모든 교육체제 속에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다.³¹⁾ 知識社會, 產業社會, 學習社會라고 불리우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個人 모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배우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을 초래하였다. 평생교육은 이러한 學習社會의 礎石이다.³²⁾

평생교육의 체제에서 個人學習, 自律的 學習, 隨時的 學習이 이루어지려면 個人 모두가 배우고자 하는 動機를 가져야 한다. 동시에 그 동기가 충족될 수 있는 教育機會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살려나갈 수 있는 教育力(educability)을 갖추는

30) 張眞鎭, “平生教育의 概念,”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주)平生教育論壇, '81, pp.35-36

31) 吳基亨外역, 앞의 책, pp.223-24

32) 金丹養, “生存을 위한 學習,”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주), 앞의 책, pp.44.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³³⁾

평생교육에서는 교육기회의 보장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삼는다. 아직까지도 制度的인 학교로서는 교육기회의 均衡的 配分을 적절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원하는 수준의 學校나 教育機關에 언제든지 就學 내지 通學할 수 있는 교육의 機會均等問題는 학교교육에 국한된 문제일 수 없다. 萬人을 위한 언제든지의 배움은 教育權의 要請이라고 부를 수 있고 社會全成員에게는 「놓쳐버린 교육기회」를 회복시키려 하고 「보다더한 기회」를 바라고자 할 때, 현실의 교육정책이나 제도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기회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民主社會가 在民主權의 사회인 이상 教育을 받을 權利는 學校本位의 制度的 硬直이나 未洽을 더 이상 앞으로 용납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教育權의 後歸的 行使나 伸張을 요구하는 民主化의 요청이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학습사회는 국민의 교육의 권리가 自由自在로 행사될 수 있는 教育 社會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널리 주어져 있다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것은 그 주체인 국민의 教育에 대한 意識이나 動機여하에 달려있다. 動機化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적, 상승적 학습은 발전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教育的 覺醒의 문제이므로 자기지향적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를 促發할 수 있는 社會的 風土가 형성되도록 教育動機化의 共同體的 素任을 나누어가지는 教育的 努力이 중요한 실천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각종의 교육기관들이 이를 자극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大學과 같이 그 잠재력이 큰 기관들에 있어서는 이를 실천하는 先導的 努力이 크게 기대된다.

평생교육에서는 個人學習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各人의 教育力의 구비이다. 스스로 學習計劃을 마련하고 그 計劃을 스스로 수행해나갈 수 있는 基本技能이 충분히 갖추어져야하고 學習資料와 媒體를 효율적으로 活用하는 能力, 學習成度에 대한 自己評價力등, 말하자면 自學自習의 能力이 중요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상에서 평생교육은 學校教育과 그에 대한 繼續, 補充的 性格을 지닌 教育들이 팽창해감에 따라, 이 모든 時期, 모든 形態의 教育들을 統合하려는 데서 生成된 發展的 教育이라 할 수 있다.

Ⅲ. 大學의 平生教育

지금까지 평생교육 개념의 발전을 이해해 온 것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평생교육의 下位的 構

33) Dave, R.H., op.cit, pp.54-55

造에서의 대학의 社會教育의 側面을 중심으로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大學의 社會的 機能

학교는 원래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지역사회 안에 세워진 기관이다.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평생교육의 견지에서 볼때 대학은 어떠한 교육기관보다도 특징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형식교육의 정점을 이루는 기관이기도 하거니와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전문성을 구유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역할이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3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소위 教育과 研究, 그리고 奉仕이다. 교육과 연구는 대학발달의 초기과정에서 부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나 봉사의 기능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産業技術社會에 있어서 大學의 奉仕機能은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다. 大學人은 한 社會에서 잠재적 교육력을 갖고 있는 專門人의 集團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공급한다. 앞으로 기술사회의 도전으로 해서 대학의 능동적인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한 사회에서의 대학의 役割은 진화론적 견지에서 適應性(adaptability)와 可塑性(Plasticity)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³⁴⁾ Luria에 의하면 可塑性이란 3가지 차원에서 구별된다.

즉, 이는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대한 受動的反應과 創意的인 感受성이냐? 아니면 外部의 壓力에 대한 受動的인 服從이냐 혹은 목적없이 흔들리는 것인가의 유형이다. 그러면서 대학은 社會的 實驗을 통한 能動的 役割로 開放的으로 (Openly an active role in social experimentation) 대응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그 본래의 自由의 精神과 批判的인 實驗을 통해서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社會의 諸問題를 탐색함으로써 분명하고도 창의적인 역할을 실현해 갈 수 있다면 대학은 굳건한 토대 위에 설 것이며 사회에 대한 이러한 接近은 知性的 청지기로서 대학의 사명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종의 대학의 社會參與로서 (파당적 집단행동의 참여의 개념과 다른) 구체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에로 지향하는 社會 諸分野의 構造를 새롭게 조직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며 사회변화의 과정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수락하게 되면 그 교육적 역할 또한 다른 次元을 지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機軸을 긋는 대학을 대학의 평생교육의 체제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학교가 지역사회전체의 生活向上을 위한 전환적 노력들은 이미 1930年代에 美國의 地域社會學校運動에서 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大學의 경우, 歐美의 여러 대학에서 開

34) S.E. and Zella Luria, "The Role of the University: Ivory Tower Service Station, or Frontier Post?" Graubard, S.R., and Ballotti, G., (ed.) The Embattled University, New York: George Brazillier, '70, pp. 75 ~ 83

放大學 (open university) 과 같은 校外成人教育 (extra-mural service) 또는 大學擴張教育 (university extension) 을 통하여 定型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社會·成人教育으로서 영국의 대학들에서 일찍부터 착수되었던 校外教育部 (extra-mural division) 에 의한 사업과 미국의 大學公開講座와 같은 成人教育事業과 公立大學의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농사교육사업 (agricultural extension) 에서 보여지는 地域社會教育의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대학의 社會教育프로그램은 70年代 새마을운동의 맥락과 같이 하면서 그 활동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그것들은 農村奉仕活動의 특징을 지닌 것들도 많았지만 市民大學이니 하는 대학의 社會教育事業들도 활발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後者와 같은 대학의 사회교육 사업은 아직도 소수대학에 국한되어 있으며, Liveright의 지적처럼,³⁵⁾ 우리의 대학풍토에서는 周邊的인 殘余機能으로 인식됨으로써 대학의 全體教育體系에 統合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의 社會教育의 중요성은 새로운 측면에서 강조되어 이해해야 된다고 본다. 社會教育法에 의하면 헌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각자에게 평생을 통하여 社會教育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法 2條에는 국민의 平生教育을 위한 조직적인 教育活動을 社會教育이라 규정하고 또 24條에는 대학은 大學의 特性에 맞는 社會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평생교육적 맥락에서 대학사회교육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大學이 社會教育에 대한 能動的 創意的 努力을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社會教育을 全教育體系에 統合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大學이 平生教育이 관점에서 靑少年教育뿐만 아니라 成人을 위한 社會教育을 大學教育全體系 속에 編制·實踐해나가는 方向으로 혁신이 필요하다.³⁶⁾

요컨대 평생교육은 대학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연구와 교수라는 전통적인 사명에만 머물러 있어선 안되고 모든 인간의 평생동안의 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多衆的인 課題遂行의 장소로 전환되어야 한다.³⁷⁾ 향후 10년간에 우리의 대학이 직면하고 극복해야만 할 改革的 挑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잠재적인 成人平生學習들을 위한 적절한 방안의 강구라고 본다.³⁸⁾

35) Liveright, A. A., "Adult Educa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nowles (ed), Handbook of Adult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Adult Education Association of the U.S.A. 68

36) Dumazedier, J., Continuing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System in France, Paris : Unesco. 72

37) 吳麟鐸 "平生教育의 哲學的 基礎," 金蘭洙外, 앞의 책 p.87

38) 위의 책, 金蘭洙, "평생교육 : 앞으로의 과제," p. 240

2) 社會教育의 內容 및 方案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교육의 內容類型을 간략히 요약하겠다.

Smith는 社會教育의 內容을 그 機能을 고려하여 ① 市民의 基礎教育, ② 人間關係訓練, ③ 家庭生活을 위한 教育, ④ 社會的 公共責任을 위한 教育, ⑤ 職場技術教育, ⑥ 女性의 繼續教育을 들고 있으며,³⁹⁾ Marcus 등은 ① 住民들의 건강, 가이던스, 복지, 교육, 지역사회조직의 분야에서의 現職訓練, ② 家族生活의 훈련, ③ 老後를 위한 퇴직의 계획과 준비 등을 成人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제기하였다.⁴⁰⁾ 또한 Vurner는 ① 基礎教育, ② 老人教育, ③ 創造的 藝術活動, ④ 教養教育, ⑤ 公共教育, ⑥ 家值生活教育 ⑦ 地域社會發展등이며,⁴¹⁾ 특히 農村住民教育和 관련시켜 생각하면, ① 基礎·教養教育, ② 家庭生活의 改善을 위한 教育, ③ 地域社會 改善 教育, ④ 職業教育 등이 중요한 내용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⁴²⁾

이러한 內容領域들은 地域社會의 教育的 課題나 대학의 特性에 따라 신축성있게 통합될 수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전개해 온 사회교육프로그램속에서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대학의 프로그램 개설 및 그 운영에서 시도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金蘭洙는 평생교육의 앞으로의 과제를 논하는 가운데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機能發揮에서 몇가지 方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⁴³⁾

① 새로운 성인 평생학습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의 운영스케줄을 융통성있게 바꾸는 방법이다. 오후 늦게 또는 저녁시간에 성인강좌를 개설하거나 휴가중에 이용할 수 있는 단기 특별교육과정의 개설, 또는 주말대학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세미나 워크샵, 크리닉 등의 학습형태를 활용한다.

② 대학은 성인평생학습자들이 정규교육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특별입학사정 및 수학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자원을 확충하며 定時制(part time) 학생을 인정하며 학업중단학생의 계속 수행을 언제나 허용해주는 일 등이다.

39) Smith, R. M., et al., Handbook of Adult Education, New York: The McMillan '70 pp.418-501.

40) Marcus E.E., and Havighust, R.J. "Education for the Aging," in Boone, J.E and Others(ed) op.cit., p.34

41) Vurner, C., Adult Education, New York,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188-91의 再引用.

42) Coombs, P.H., With Ahmed, M., op.cit., p.15

43) 金蘭洙 앞의 책. p.24-48

③ 대학은 성인평생학습자들을 위한 學問間的 協同學位 (interdisciplinary degree)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문의 지적인 탐구보다는 그들의 실용적인 학습욕구에 쉽게 합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다.

④ 대학은 성인평생학습자들의 학습상담활동을 전개하여 배우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몰라서 애쓰는 성인들, 어디에 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배워야 좋은지 모르는 평생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학은 평생학습자들을 위한 教授學習技術이나 필요한 학습매체등의 자료를 개발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나 대량의 학습자, 또는 원거리의 학습자들을 위한 필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3) 大學社會教育의 몇 가지 당면문제

대학이 사회교육의 先導的 役割을 담당하려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가장 큰 장애는 大學에서의 社會教育은 副次的인 機能이라는 교수들의 인식이다. 만약에 대학이 成人 平生學習者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여 運營한다고 할 때 그들에 대한 講義나 助力은 달갑지 않은 일로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은 교수들의 教育이나 大學의 기능에 대한 전통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대학의 全體制내에서 평생학습자들의 정규의 청소년 학습자들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해 나가도록 교수들의 自發的 關心과 積極적 參與를 뒷받침할 수 있는 制度的인 基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⁴⁴⁾

다음으로 평생학습자들의 學點取得 및 認定에 관한 문제이다. 이들의 학점취득에는 상당기간이 요구되며 생활환경의 변화등으로 대학을 옮기는 등의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은 大學間 學點 相互認定制度가 강구되어 평생학습기회가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⁴⁵⁾

세계로는 현재로서 地域의 大學들은 社會教育機能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基礎研究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地域社會의 社會教育에 대한 必要를 조사하는 일에서부터 그 對象資源의 파악이나 이미 社會教育機能을 部分的으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自願團體의 프로그램과 그 實際등에 이르기까지 그 實態를 조사하고 研究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지역내의 모든 社會教育組織과 活動을 相互 調整 또는 指導하는 役割도 필요하리라고 보며 委託教育이나 指導者의 훈련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大學

44) 黃宗建, "大學에서의 社會教育," 한국교육개발원, 韓國社會教育의 發展課題, '79. pp. 52-67

45) 金蘭洙, 앞의 글. p. 246

의 社會教育의 研究와 指導라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地域社會學校로서의 大學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地域社會學校運動으로서의 大學의 役割과 參與에 관한 문제이다. 대학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地域社會化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실천모형은 지역사회학교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金鍾喆의 지적처럼 한국의 지역사회학교운동은 初中等學校에서 하는 일처럼 여겨지고 있지만⁴⁶⁾ 지역사회학교의 요체는 學校施設의 開放과 住民教育에의 參與라고 볼 때,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지역사회학교운동의 참여와 관련시켜 그 교육적 이념을 수렴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동안 우리의 대학들이 각종 地域社會奉仕活動들은 중요한 地域社會學校의 실천이었지만 그 活動이 自發的이며 일관된 것이었느냐에는 일단 회의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地域社會學校(大學)은 地域의 住民이 大學의 社會教育, 住民教育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등교하며 대학시설을 활용하여 교수들의 지도와 참가자들에 의한 개별적 집단적 학습활동을 계속하고 地域社會의 問題가 논의되며 그 解決方案에 대한 共同努力이 경주된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지역사회로 나가서 그 開發過程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대학밖으로 확산 보급하는 일등⁴⁷⁾을 대학의 본연의 과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지역사회학교에의 전환을 가름하는 중요한 관점이 된다. 이러한 觀點이나 활동들에 대해 아직도 우리의 대학풍토는 비판적이지만 이는 大學教育의 本質的 機能에 대한 實踐的 性格이나 그 모형에 대한 경험적 능력이 부족한 현실과 理解가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들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은 아직은 탐색의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지금까지 대학의 社會教育의 展開過程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부가적인 形態로 답습되거나 할 것이 아니라 大學의 全教育體系에 統合하여 推進하는 方向으로 강화될 것이 요청된다.

IV. 結 論

평생교육은 교육의 기간에 청소년만이 국한될 수 없고 全生涯에 걸치는 일이며 自我實現을 위한 교육의 목적에 충실하게 합치될 수 있다고 믿는 교육이념이다. 학교는 현대에 와서 여러가지 도전을 받게 되었다. 교육본래의 기능에 비추어 이제 그 限界性은 완전히 들어나 비

46) 金鍾喆外, 韓國새마을教育의 研究, 한국교육학회. '74.

47) 安泰潤, "大學의 社會教育機能," 地域社會教育研究 8집,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82 pp.38-39.

렸고 현대사회의 변모는 학교에서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들을 제기하였다. 또한 인간발달이 성취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업들은 교육이 어느 한 시기에 완성될 수 없는 것이며 현대생활의 요청도 평생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도록 인간의 평생학습을 절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학교의 기능을 部分的으로 위축시키고 있지만 한편으로 相對的으로 교육을 바라다 볼 새로운 제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육이 지금까지 대상으로 했던 靑少年만이 아니라 成人들까지 포함하는 學校後 또는 學校外教育에 보다 적절한 교육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는 靑少年에만 국한되지 아니한 지역사회의 全年令層을 대상으로 教育의 機會를 확대해가는 開放的 教育體制와 다원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필요로 충족시키는 일이 절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은 한 社會의 指導的 位置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專門的 資源들은 이러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관이다. 주민들에게 平生學習에 대한 上昇的 動機를 자극하고 主體的 自己革新을 실천해 나가는 데 적극 봉사함으로써 사회적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대학은 평생교육의 체제내에서 統合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계단별로 전개될 교육의 目標와 學習內容, 方法 등에서 제도적으로 새롭게 체계화되고 보편화 되는데 그 혁신의 역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한 확인 및 이를 해결하려는 창의적 봉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大學에서의 社會教育은 平生教育의 次元에서 맞아들이게 되는 새로운 교육영역이며, 따라서 平生學習者들이 대학에서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역사회학교로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며, 여기에는 학교시설의 개방만이 아닌 住民教育에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체제하에서의 대학은 주민들로 하여금 대학의 각종 교육기회에 적극 참여하게 하며 지역사회의 문제가 논의되고 그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주도하는 중요한 기관이 될 것이다.

평생교육은 아직도 발전과정에 있는 이념이다. 때문에 대학이 그 연구와 봉사의 중요한 기능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대학자체의 진보적 변용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공동체적 요청에서도 끊임없이 대학에 제기라는 집요한 도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 Summary —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a Lifelong Education and
the Social Education Provided by College**

by Soon-hyung Lee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a lifelong education and the role of a college education. As we have no clear concepts of a lifelong education ye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applying it practically to the existing educational laws, systems, and organizations.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f the basic concepts of a lifelong education will be helpful in overcoming the lack of criteria that currently exists for our understanding of a lifelong education and which are badly needed by administrators and educators.

In the light of the said aims of this study, the ideological bases of lifelong education have been studied in regard to the limitations of a college education, and the demands in a changing society, as well as the education needed for self-realization. Thus, the major concepts of a lifelong education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process of unifying all the education that promotes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human being.
- 2) the unification of all the fields in which this education is conducted.
- 3) the derivation from emphasizing a philosophical standpoint for pursuing a meaningful life.
- 4) the self-learning which can be conducted at any time, at any place.

With the above conceptual bases, this writer has tried to suggest practical assignments for lifelong education in college by presenting its social function and by reviewing several patterns and solutions of social education for people in community, while considering the colleges' professional servic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